

비영주권자 입대(MAVNI) 프로그램 지원 의 모든 것(Version 1.1)

Version 1.1 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0 에서 1.1 로 새로 업데이트 된 부분은 파란색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MCA Instructor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미군에의 입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말까지 외국국적 소유자가 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주권(Permanent Resident)을 갖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8년 12월 경 미 국방부에서 영주권이 없는 미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입대를 허용하는 소위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 (MAVNI) 모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이라는 것을 일종의 파일럿(pilot) 프로그램으로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시 발표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수 많은 한인 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과 답들을 총합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현재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을 계속 받아서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종류>

현재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 (1) Health Care Professionals
- (2) Enlisted Individuals with Special Language and Culture Backgrounds

첫 번째의 카테고리는 헬스케어, 즉 메디칼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의사(Physician), 치과의사(Dentist)와 간호사(RN)가 있습니다. 이들 세 분야 이외에도, 몇몇 기초의학 분야의 전문가들(Ex: Optometry, Microbiology, Clinical Laboratory Science, Nuclear Medicine, Entomology, Clinical Psychologist, Veterinarian, Physician Assistant등)도 reserve component쪽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로의 모집 인원은 총 **333명**입니다. 지원자는 3년의 현역복무와 6년의 예비역복무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정 언어와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병의 모집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정 언어와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갖는 사람을 사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이지, 특정 언어의 통역관을 모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 많은 신문들과 뉴스에 끊임없이 잘못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카테고리가 통역관, 또는 통역병을 모집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 카테고리로 지원하는 지원자들 중 통역관이 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통역관 병과 자체가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는 병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입대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81가지의 모든 병과를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로의 모집 인원은 총 **557명**입니다. 지원자는 무조건 4년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쳐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몇몇 분들께서는 의아해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신문에는 1000명이라고 냈던데, 왜 1000명이 안되지?” 그 이유는 바로 1000명의 할당된 인원 중, 미육군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890명 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10명은 미해군과 미공군에 할당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해군과 미공군 측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자체가 잡혀있지 않아서 언제 시작이 될지, 아니 시작 자체가 될지 안될지의 여부 조차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

이제 크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았으니,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 E, F, H, I, J, K, L, M, O, P, Q, R, S, T, TC, TD, TN, U, 또는 V 비이민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의 소유자이거나 asylee, refugee, TPS 신분이고,
- (2)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당일 이전 2년동안 미국 내에 위에 언급된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어야 하고,
- (3) 2년 동안의 체류 기간동안, 90일 초과외 단일 미국외 체류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2008년 12월 이 프로그램이 공표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 질문수를 차지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많은 분들께서 지원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중요했던 질문들을 몇 가지 골라 보았습니다.

첫째, 지원하시려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내 체류 기간은 반드시 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재 22개월이다’ ‘현재 23개월이다’ 등등 체류 기간이 조금 미달될 때 지원할 수 없냐는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Department of Army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안된다’ 입니다. 아직 체류 기간이 24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번거롭고 조급한 마음도 드시겠지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병관과 미리 연락

을 해서 신상관련 서류의 전달이나 기타 지원서 작성등의 업무는 미리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시작단계 업무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미국토안보부)로의 개인 신분 조회절차는 24개월이 지나야만 (소위) '합격'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잘 모르는 모병관을 통해 조회를 받으신 몇몇 분들께서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위의 24개월 체류기간은 반드시 위에 언급되어진 체류신분으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위에 언급된 체류신분들 사이에서 체류신분이 변경된 경우는 두 신분 모두 체류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분들께서 쓰시는 방법인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시는 케이스의 경우는 B1/B2 체류신분으로 있었던 기간은 위의 24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방문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 기간을 잘 계산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위의 2년 기간동안 해외로 출국을 했을 경우, 단일 출국 기간이 90일을 초과(90일까지는 괜찮습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했을 경우는 90일 초과 후 재입국 했을 때부터 새로이 2년의 기간이 지나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일 출국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았다면, 여러 차례 출국을 하셨더라도 상관없으며, 2년 동안 총 출국 기간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또한 상관 없습니다.

네째, 이 항목은 헬스케어 카테고리, 특히 간호사 지원자 분들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원자 분들중에 한국에서 BSN을 마치시고 오신 분들께서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학위는 무조건 미국의 학위(ASN이나 BSN)가 있으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또한 미국의 RN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 한국에서 BSN을 마치셨더라도, 미국에서 MSN이나 FNP프로그램을 마치셨으면 이런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최종 학위가 미국의 대학에서 받은 상황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미국의 ASN, BSN 학위라 하더라도 미군에서 인정하는 학위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모든 미국내 학위가 미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학위가 인정이 되는 학위인지 아닌지는 AMEDD 모병관에게 문의를 하시면 알려줄 겁니다. RN이 아닌 LVN 면허의 소유자는 입대는 가능하지만, 헬스케어 카테고리가 아닌 언어능력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셔야 하며,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68WM6)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원절차>

이제 누가 지원할 수 있는지도 알았으니,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의 두 프로그램 카테고리별로 다른 절차를 이용합니다.

1. Health Care Professional 카테고리 지원자의 경우

- A. 본인의 지원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시작
- B. MAVNI 웹사이트에 본인 정보의 등록

- C. 가까운 지역의 AMEDD 모병관에게 연락
- D. 가까운 지역의 모병소에서 pre-ASVAB 시험 응시
- E. 연락한 AMEDD 모병관에게 서류 일체를 제출
- F. AMEDD 모병관이 DHS쪽으로 본인 신분 조회를 하는 동안 ASVAB 공부
- G. DHS 조회 결과가 나오면, ASVAB, ECLT 시험 일정 받음 (SSN 신청)
- H. ASVAB, ECLT 시험 응시, MEPS에서 신체검사
- I. MEPS에서 contract 작성, 선서 수행
- J. '1 day of active duty service'를 수행, 이 때 시민권 서류 작성 및 접수
- K. Individual Ready Reserve (IRR)로 예편 후 시민권 승인을 대기
- L. 시민권 승인이 나오면, Officer Basic Course (OBC)로 shipping
- M. OBC 수료후 임관

2. Enlisted Individuals with Special Language and Culture Backgrounds

- A. 본인의 지원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시작
- B. MAVNI 웹사이트에 본인 정보의 등록
- C. 뉴욕시 지역의 모병관 중 한 사람에게 연락
- D. 가까운 지역의 모병소에서 pre-ASVAB 시험 응시
- E. 연락한 뉴욕시 지역 모병관에게 서류 일체를 제출
- F. 뉴욕시 모병관이 DHS쪽으로 본인 신분 조회를 하는 동안 ASVAB 공부
- G. Police Record Check (DD369) form 작성 및 확인 받음
- H. DHS 조회 결과가 나오면, ASVAB, OPI 시험 일정 받음 (SSN 신청)
- I. ASVAB, OPI 시험 응시, MEPS에서 신체검사
- J. MEPS에서 병과 선택, contract 작성, 선서 수행
- K. 예정된 shipping date에 Basic Combat Training (BCT)로 shipping
- L. BCT 종료 후, Advanced Individual Training (AIT)로 shipping
- M. AIT 중에 시민권 서류 작성 및 접수
- N. AIT 종료 후 자대배치 (PCS), 시민권 승인

위의 지원 절차는 모병관 별로, 모병소 별로 다른 과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절대적인 절차는 아님을 밝혀 둡니다. 위와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는 데에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지원에 필요한 서류들로는, 여권사본, 비자사본, I-94사본, I-20사본(유학생의 경우), I-797사본(본인의 체류신분이 변경되었거나 워크퍼미팅등의 신청승인이 난 경우 승인 통보서등이 오는데,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I-797 입니다) 등이 일차적으로 DHS로의 신분 조회하는

데에 필요하고, 이 외에도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성적증명 및 (만약 있다면) 대학교 졸업 증명/성적증명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서류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증명/성적증명은 반드시 원본으로 있어야만 하고, 또한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본이 영문이 아닌 국문서류인 경우는 번역 및 공증도 받아두시는 것이 차후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가끔 잘못하면 MEPS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스스로 번역을 해야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호적등본(또는 가족등록부)를 받아서 이 역시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 두시면 부양가족 신청시에 편리합니다. 헬스케어 카테고리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본인의 학위, 성적증명, 그리고 라이선스등의 카피등도 당연히 제출하셔야 겠지요.

일단 서류들이 다 준비 되셨다면, goarmy.com에 있는 MAVNI 등록 웹사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카테고리 지원자 분들께서는 <http://www.goarmy.com/info/mavni> 로 접속하시면 되고, 언어능력 카테고리 지원하시는 분들은 <http://www.goarmy.com/info/mavni/healthcare>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셨다면, 해당 모병관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pre-ASVAB을 보셔야 합니다. Pre-ASVAB이란, 본 시험인 ASVAB을 보기 이전에, 지원자의 ASVAB 예상 점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축소판 시험으로, 거의 모든 육군 모병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뉴욕시 지역 모병관이나 AMEDD 모병관들이 지원자의 서류를 받기전에 pre-ASVAB 시험 결과를 알고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모병관의 연락처를 받았다면, 가까운 일반 모병소에 가서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pre-ASVAB 시험을 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일단 50점이 넘으셨다면 그 점수를 일반 모병소 모병관에게 (지원하려는) 해당 모병관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헬스케어 카테고리 지원자 분들의 경우는 50점이 아닌 31점 이상만 되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헬스케어 카테고리 지원자 분들은 해당 지역의 AMEDD 리크루터들과 프로세싱을 하기에 여행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언어능력 카테고리 지원자 분들은 뉴욕시에서만 프로세싱이 가능하기에 뉴욕으로 직접 가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은 우편으로도 가능한 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고 빠른 프로세싱을 원하신다면 직접 가서서 모병관을 만나고 오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능력 카테고리 지원자의 경우, DD369 form이라 불리는 범죄경력 조회 서류를 작성해서 모병관에게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원래 이 서류는 대부분 모병관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는 서류였지만, 프로그램 지원자들의 경우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때문에, 지원자에게 form을 주어서 해당 지역의 court에 직접 가서 확인을 받아오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분들께서는 DHS의 신분 조회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 form을 작성, 확인을 받으셔서 모병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 위의 pre-ASVAB 시험을 보는 과정중에 해당 지

역의 일반 모병소 모병관과 친해지셨다면(?) 그 모병관에게 확인 절차를 부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 모병관이 알아서 다 알아다 줄지도 모릅니다(어디까지나 운이 좋다면).

DHS로부터 신분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모병관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보통 DHS의 신분 조회 과정은 2주 전후로 걸립니다. 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한 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병관에게서 연락이 오면, 이제 본 ASVAB 시험과 ECLT (헬스케어 카테고리의 경우) 또는 OPI (언어능력 카테고리의 경우)를 볼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이 시험들을 보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카테고리 지원자 분들은 다시 한 번 뉴욕을 방문하셔야 되는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의 두 시험이 끝나고, MEPS에서 신체 검사가 끝나면, 언어능력 카테고리 지원자 분들은 병과(MOS)를 선택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병과 선택이 끝나면, 임대계약서(contract)을 작성해서 사인하게 되고, 임대 선서를 하게 됨으로서 임대의 준비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헬스케어 카테고리 지원자 분들은, 사병 임대의 MOS를 고르는 과정은 (아마도) 하지 않고 바로 contract을 작성해서 사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사인을 하고 나면, 헬스케어 카테고리 지원자들은 소위 '1 day of active duty service' 라는 하루동안의 현역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하루동안 군신분증 발급 및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같은 절차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다 마치고 나면, 헬스케어 카테고리 지원자들은 Individual Ready Reserve (IRR)라고 불리는 예비역의 상태로 예편(?)이 되어지고, 시민권의 승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약 6~12개월 후 시민권의 승인이 나게되면, 지원자는 현역으로 복귀가 되어 Officer Basic Course (OBC)라고 불리는 기초장교훈련을 받으러 가게 되고, 이 과정이 끝나면 한 명의 의무장교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언어능력 카테고리의 지원자들은 일단 contract를 작성하고 선서를 하게 되면, 지정된 shipping 날짜에 Basic Combat Training (BCT)라고 불리는 약 9주간의 기초군사훈련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마치고 나면 Advanced Individual Training (AIT)라고 불리는 병과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AIT 동안 시민권의 신청을 하게 되고, AIT를 마치고 자대배치(PCS: Permanent Change of Station)를 받게 된 후 역시 6~12개월 사이에 시민권의 승인이 나오게 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기타 현재까지의 FAQ>

1. 불법체류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까?

A. 불가능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떠한 임대 계획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가능하다 운운하는 소문은 모두 근거없음 입니다.

2.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까?

A.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원칙

적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하지만) waiver를 신청해서 입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지원자의 경우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 기록도 입대를 불허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3. 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면 됩니까?

A.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려면, 최근 2년간 미국 내에서 거주를 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하신 분은 지원 하실수 없습니다. 단, 미국 내에서 위에 언급된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시다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신 상태라면 90일 이내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정말 이 프로그램으로 입대하면 영주권을 줍니까?

A. 아직까지도 수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들은 영주권이 아닌 미시민권을 바로 부여받게 됩니다.

5. 시민권을 받은 후, 복무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A. 복무를 그만두려 하실 경우, 시민권은 취소 됩니다. 그리고, 미군 복무중에 복무를 그만두고 나가는 것은 한국에서 한국군 복무를 중단하고 나가는 것 이상으로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일입니다.

6.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지원자의 가족들(직계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함. 성년자녀와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은, 지원자의 시민권 신청의 승인이 날 때까지는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일시적으로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지원자 본인의 시민권 승인이 나게되면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 체류 상태에서의 신청때와 불법 체류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시의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이 프로그램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A. 기간 상으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 인원또한 한정이 되어 있기에, 890명의 모집 인원이 모두 차게되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프로그램은 종료 됩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언어능력 카테고리의 경우 6~7월쯤, 헬스케어 카테고리의 경우 9~10월쯤에 모집 인원이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6월경에 신청을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신청 시작부터 contract의 사인까지 짧게는 3주, 길게는 2개월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전에는 (언어능력 카테고리의 경우) 시작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8. ASVAB 시험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ASVAB 시험 준비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상에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언급해 드리기에는 지면이 너무 좁을 듯 합니다. 구글이나 야후 등으로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다음의 한국계 미군 카페 (<http://cafe.daum.net/USmilitary>) 에서도 여러가지 유용한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어와 중학교 학 두 가지 과목에, 중학교 과학, 기술 정도의 과목이 섞여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과목들은 대부분 평이한 시험 문제들이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마치신 분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문제 자체에 나오는 영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는 미국 SAT 수준의 영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외우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9. ASVAB 시험을 보고 나면 나오는 AFQT라는 점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50점을 넘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해야 50점이 나오는 것이지요?

A. AFQT 점수는 한마디로 상대평가 표준화 점수입니다. 과거에 ASVAB을 보았던 미국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룹이 맞았던 성적을 99점, 하위 1%에 해당하는 그룹에 맞았던 성적을 1점으로 놓고, 그 사이에 해당 %에 해당하는 절대점수를 배열해서 놓은 점수입니다. 따라서, AFQT가 50점이라는 말은, 본인의 성적이 미 고등학생들이 예전에 받았던 성적과 비교해 볼 때, 최소한 하위 49% 이상보다는 높았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만약 99점이라면? 그 말은 즉 미국의 고등학생 98% 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지원자들, 그리고 헬스케어 카테고리의 프로그램 지원자 분들은 31점 이상의 AFQT 점수가 필요하고, 언어능력 카테고리의 지원자 분들은 50점 이상의 AFQT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10. Reserve가 무엇인지요? Reserve로 복무하면서, 기존의 직장을 그대로 다닐 수 있다던데

.....

A. Reserve란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예비군입니다. Reserve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Reserve로의 입대란 Selected Reserve를 말합니다. 이 Selected Reserve는 입대 후, 훈련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민간인으로 복귀해서 민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이틀간 주말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2주 동안도 집중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년 대부분의 기간동안 주중에는 민간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현실은 좀 다릅니다. Reserve들의 경우 대부분 6년의 의무 복무 기간동안 최소한 두 세번 정도는 activation, deployment가 되어서 현역으로 근무를 하셔야 될 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Deployment가 된다면 또한 이는 이라크나 아프간으로 보내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라크로도 가게 되나요?” “이라크나 아프간으로 안 갈수는 없나요?” 등등의 아주 원론적인 사항을 무시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미군은 전쟁중인 상태이고, 예비군은 그 전쟁에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에, 파병이라는 요소는 항상 고려를 하시고 입대 자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1. 그렇다면 헬스케어 카테고리 현역으로 지원하면 3년만 근무하면 제대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reserve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reserve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현역으로 3년복무를 선택하시더라도 남은 5년의 기간 동안은 reserve, 그 중에서도 selected reserve로 3년간은 근무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2년은 individual ready reserve (IRR)로 남아있게 됩니다.

12.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병과(MOS)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능력 카테고리 분야의 지원자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병과(MOS: Military Occupation Skills)는 총 81가지가 있습니다. 이 81가지 병과는 기존의 영주권자 지원자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병과와 동일한 병과들입니다. 이 81가지 중, 6가지 분야는 Reserve에게만 지원 자격이 열려 있으므로, 본 프로그램의 지원자 분들께는 실질적으로 총 75가지 병과가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최근의 미국 경제의 불황 여파로 인해서 미군에 지원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수가 급증을 한 때문에, 이 75가지의 병과 중 (2009년 3월 15일) 현재 오픈되어 있는 병과는 총 27가지 뿐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27가지 오픈되어 있는 병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X: Infantrymen (보병), 19K: Armor Crewmen (기갑병), 68W: Health Care Specialist (의무병:필드메딕), 88M: Motor Transport Operator (운전병), 21E: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Operator (중장비 건설기기 운전병), 13S: Field Artillery Surveyor (포병 관측병), 92F: Petroleum Supply Specialist (급유병), 92W: Water Treatment Specialist (급수병), 74D: Chemical Operations Specialist (화학전담당병), 88L: Watercraft Engineer (선박정비병), 45K: Armament Repairer (중화기정비병), 21D: Diver (잠수특기병), 21V: Concrete and Asphalt Equipment Operator (도로건설장비 운전병),

15G: Aircraft Structural Repairer (항공기체수리병), 15R: AH-64 Attack Helicopter Repairer (아파치헬기 전담수리병), 15S: OH-58D Helicopter Repairer (카이오와헬기 전담수리병), 15U: CH-47 Helicopter Repairer (치누크헬기 전담수리병), 63J: Quartermaster and Chemical Equipment Repairer (건물,보온,화학장비 수리병), 88N: Transportation Management Coordinator (수송일정관리병), 63D: Self-propelled FA System Mechanic (자주포수리병), 15F: Aircraft Electrician (항공기전기분야수리병), 88K: Watercraft Operator (선박조종병), 15H: Aircraft Pneudraulics Repairer (항공기유압계통수리병), 21R: Interior Electrician (건축전기분야수리병), 92A: Automated Logistical Specialist (물류자동화시스템운영병), 63H: Track Vehicle Repairer (궤도차량수리병), 21W: Carpentry and Masonry Specialist (목조/석조건축작업병) 이상 병과들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병과들은 남은 자리의 수가 몇 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있는 자리도 shipping date가 한참 뒤(예를 들어서 8월, 9월)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과 선택시에 Guidance Counselor가 위의 병과들 모두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반드시 shipping date가 늦어져도 좋으니 8월, 9월, 심지어는 10월 이후에 shipping되는 병과들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MEPS의 Guidance Counselor의 화면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병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자리가 몇 개 남지 않았을 경우들입니다. 이 경우, 모병사령부(USAREC Headquarter)로 직접 전화를 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병과라도 모병사령부의 시스템 상에서는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단!!!! 이러한 요구를 하시려면 정말로 하시고 싶으신 병과 한 두가지를 미리 골라두셨다가 그 병과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셔야지, 이거 알아봐달라, 저거 알아봐달라, 두 개, 세 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변의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게 될 지도 모릅니다.

13. 타주에 있는데, 언어능력 카테고리 지원하고 싶습니다. 꼭, 뉴욕에 가야만 합니까?

- A.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듣게되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능력 카테고리에 지원하시는 분께서 뉴욕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셜번호(SSN)을 신청하기 위해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셜번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과정은 건너뛰실 수 있습니다. 소셜을 신청하고 나오기까지는 보통 1~2주 정도가 걸립니다. 둘째, ASVAB 본 시험과, OPI,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또한 꼭 뉴욕에 가셔서 하셔야만 합니다. 이 두 과정 이외에 서류의 접수나, DHS 신분 조회등의 나머지 과정들은 본인이 원하시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직접 가셔서 진행하

섯을 때와 비교해서 진행의 속도가 느릴 수 있는 단점은 감수하셔야 되겠습니다.

14.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서류 준비에서부터 실제 입대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요?

A. 저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웃음). 프로세싱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일정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본인의 서류 준비의지 및 능력, DHS의 inquiry 과정에서 생기는 개개인의 편차, 모병관의 능력과 의지, OPI 인터뷰 담당관의 스케줄 상황, 지원하고자 하는 MOS의 오픈 여부 등등이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프로세싱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인업을 다 마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ASVAB 조차도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단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참고하자면, 운이 따라주어서 가장 빠르게 프로세싱이 진행될 경우 약 3주 정도면 모든 프로세싱이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5. 미군에 지원하면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미군 지원시에 받는 보너스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자 모두 동일한 자격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지원자에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는 동일하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의 내용은 병과별로 다 다르고, 같은 병과라도 지원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될지는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 문건의 저작권은 Jae W. Hwang, M.D. (MCA Instructor)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 편집,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을 금합니다. 본 문건의 비영리적 목적의 배포는 자유이나, 반드시 출처 (<http://cafe.daum.net/USmilitary> 또는 <http://blog.daum.net/mitra88>) 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본 문건에 나온 정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본 문건은 오로지 정보제공(information only)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